

학교생활

## 서술형 평가 기준, 학교마다 다른가요?

꼼꼼하지 못한 아들이라 객관식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놓고, 서술형에서 감점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중간고사에서 수학 한 문제는 답은 맞았는데 서술 과정이 틀렸다고 부분 점수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담당 교사에게 문의했는데 점수를 줄 수 없다고 했대네요. 풀이 과정이 틀리면 답이 맞아도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없나요? 학교마다 학년마다 그리고 교과목마다 서술형 채점 기준이 다른 듯한데 그래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민선희(45·서울 동작구 상도동)

# A

## 학교·과목별 채점 기준 다를 수 있어

학생에 따라 서술형 점수가 자신이 생각한 점수와 크게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조건이나 공식 등을 적지 않았거나 계산 오류가 있다면 감점을 당할 수 있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풀이 과정과 무관한 과정을 서술해 부분 점수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 배재고 장지환 교사는 “시험 문제 출제 후 교사들은 서술형 평가 채점 기준표를 작성한다. 정답과 함께 공개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채점 기준을 어느 정도는 인지한다. 수학을 예로 들면 서술형 평가 채점 기준표에는 풀이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단계별 과정이 서술되지 않았을 때의 감점 정도도 공개한다. 그런데 같은 수학 교과라도 수학 과목이나 단위, 그리고 교사 협의 내용에 따라 서술형 평가 채점 기준은 다를 수 있다. 공통적인 서술형 채점 기준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교사가 생각하지 못한 답안을 논리적으로 작성한 학생이 있다면 교과목 교사들이 모여 부분 점수 범위를 수정하는 등 채점 기준표를 변경하기도 합니다. 빠르게 답을 구할 수 있지만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는 다른 ‘요령’이 풀이 과정에 반영될 경우 부분 점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큼니다. 제 학년에 맞는 개념을 활용해 문제를 풀어야 감점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

### MORE TIP

서술형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공부한 내용을 활용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향에 맞춰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수학의 경우,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야 하는데 서술형 연습이 선행되지 않으면 감점을 당하기 쉽습니다. 경기 영생고 김형식 교사는 “문제에서 서술형 풀이 과정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제시할 때도 많은데 학생들은 꼼꼼하게 보지 않는다. 평소 문제에서 요구하는 과정이 무엇인지 인지하는 연습, 정답 위주가 아닌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살피는 연습을 통해 감점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취재 민경순 리포터 hellela@naeil.com



입시

## A 대략적인 지원 범위를 정하기 위해 참고합니다.

정시 원서를 쓰거나 대학별 입시 결과를 비교할 때 상위누적백분위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상위누적, 누적백분위, 누적도수 등의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표를 보면 국+수+과 또는 국+수+사 백분위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수+과 백분위가 98.87이라면 이 학생이 받은 점수 아래에 전체 학생의 98.87%가 있다는 의미로, 이 학생은 상위 1.13%에 해당됩니다. 상위누적 1.13인 것이죠. 응시자가 20만 명 정도라면 이 학생의 전국 등수는  $200000 \times \frac{1.13}{100}$ 이 됩니다. 그러나 수능 성적표에는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만 표시됩니다. 대학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정부의 판단으로 인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과목별 합산 누적백분위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입시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누적백분위를 추정하고 있지만 통계적 모델이나 표본 수집 방법 등이 조금씩 달라 동일한 점수에 대해서도 추정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상위누적백분위에는 수시에 합격해 빠져나가는 인원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구 경신고 허준일 교사는 “기본적인 지원 범위를 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쓸 수 있다. 그러나 정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학별 환산점수이다. 실제 그 대학 그 학과에 지원한 학생 중 나보다 더 높은 환산점수를 가진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가 관건이다”라고 설명합니다. @

## ‘상위누적’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입시 공부를 시작한 초보 학부모입니다. 정시 원서를 쓰려면 ‘상위누적’을 알아야 한다고 하던데 상위누적의 개념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는 건가요? 수능 성적표에는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누적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상위누적을 잘 살피면 정시 원서를 제대로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선미(50·서울 강서구 염창동)

### MORE TIP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순으로 대학을 간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각 대학마다 과목별 반영 영역 비율, 탐구 영역 반영 방법, 가산점 여부 등 환산점수를 구하는 방법이 달라 같은 상위누적백분위를 가진 학생이라도 하더라도 유불리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진학사 하철 연구원은 “대략적인 지원 범위를 정하면 대학별 환산점수를 구해 지원자에게 유리한 군별 후보를 정한 후 모의지원 경향을 살펴 지원자의 대학별 환산점수 순위가 모집 인원 또는 추가 합격 가능 인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취재 박민아 리포터 minapark@naeil.com